

회차	근대의 한국사 (홍선대원군 ~ 일제강점기 이전)	
74	호포제를 시행하여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다.	홍선대원군
74	사창절목에 따라 사창제가 시행되었다.	홍선대원군
74	한성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갑신정변
74	사태의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임술농민봉기
74	전개 과정에서 이승훈, 정약용 등이 연루되어 처벌되었다.	신유박해
74	황사영 백서 사건 원인	신유박해
74	관세 조정 관련 조약	조미 수호 통상 조약
74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는 원인	을사늑약
74	북학 사상을 바탕으로 통상 개화론을 주장하다	박규수
74	영남만민소를 주도해 개항과 통상에 반대하다	이만손
74	보빙사로 미국에 다녀와 개화 정책을 추진하다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유길준
74	서유견문을 집필하여 서양 근대 문명을 소개하다	유길준
74	백정 출신으로 관민 공동회에서 연설하다	박성춘
74	고종 / 구본신참 / 개혁 / 지계아문 설치 후 지계 발급	광무개혁
74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채택하였다.	을미개혁
74	박문국을 설치하고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민씨정권 개화정책 (1883년)
74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을 설립하였다.	민씨정권 개화정책 (1883년)
74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2차 갑오개혁
74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 / 전봉준 봉기 / 전주화약 체결	동학농민운동
74	삼국 간섭의 결과를 알아본다.	을미사변
74	척화비가 건립된 계기를 조사한다.	홍선대원군
74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목적을 분석한다.	러시아 남하 저지
74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된 배경을 찾아본다.	병인양요
74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으로 참여	정미의병
74	최익현이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을사의병
74	[시기]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하였다.	러일 전쟁
74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부임하였다	1차 한일협약
74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정미의병
74	유인석이 이끄는 부대가 충주성을 점령하였다.	을미의병
74	[연도] 경부선 개통	1905년
74	[연도] 대한매일신보를 읽고 있는 청년	1904년
74	[연도] 원각사에서 은세계 공연을 보는 여성	1908년
74	[연도] 통리기무아문에서 개화 정책을 논의하는 관리	1880년
74	[연도] 용암포 사건	1903년 (러일전쟁 배경)
74	1차 갑오개혁 당시 도입된 근대적인 관료 선발 제도 (과거제 폐지)	선거조례
74	1차 갑오개혁 당시 도입된 근대적인 관료 선발 제도 (과거제 폐지)	
73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하였다.	갑신정변
73	전개 과정에서 홍범 14조가 반포되었다.	2차 갑오개혁
73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개화정책
73	조일 통상 장정이 체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임오군란
73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임오군란
73	김옥균, 홍영식 등의 급진 개화파가 축하연을 습격	갑신정변
73	군수 조병갑의 횡포로 일어난 반란	고부민란
73	남점과 북점이 논산에서 연합하였다.	2차 동학 농민 운동
73	최제우가 흑세무민의 죄로 처형되었다.	1864년
73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였다.	2차 동학농민운동 배경
73	농민군이 황룡촌 전투에서 관군에 승리하였다.	1차 동학농민운동
73	우금치에서 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2차 동학농민운동
73	[연도]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1908년
73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였다.	보안회
73	청나라 상인의 내륙 진출 허용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전

회차	근대의 한국사 (홍선대원군 ~ 일제강점기 이전)	
73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시행되었다.	1차 한일협약
73	양기탁이 일본에서 들여온 차관을 갚기 위해 일으킨 운동	국채보상운동 (1907)
73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아 확산되었다.	국채보상운동 (1907)
73	일제로부터 외교권을 박탈당했다.	을사늑약 (1905)
73	러일 전쟁 중에 체결되었다.	1차 한일 협약 (1904)
73	최혜국 대우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조미수호 통상 조약
73	천주교 포교 허용의 근거가 되었다.	조프 통상 조약 (1886)
73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을사늑약 (1905)
73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되는 배경이 되었다.	1차 한일 협약
73	[연도] 척화비를 세우기 위해 돌을 다듬는 석공	1871년
73	[연도]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영국 군인	1885~1887년
73	[연도] 연무당에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는 관리	강화도 조약 (1876)
73	[연도] 보병사의 일원으로 미국에 파견되는 역관	1883년
73	[연도] 경부선 철도 개통식을 취재하는 신문 기자	1905년
73	원각사에서 연극 은세계를 공연하는 배우	1908년
73	서울 진공 작전에 참여하는 13도 창의군 의병	1909년
73	보국안민, 제폭구민 등이 구호로 사용되었다.	동학농민운동
72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등이 참여하였다.	보병사 (1883)
72	삼군부를 부활시켜 군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홍선대원군
72	정부에서 발행한 순 한글 신문	한성순보
72	서재필의 주도로 창간된 신문	독립신문
72	일장기를 삭제한 손기정 사진이 실린 신문	동아일보
72	상업 광고가 처음으로 게재된 신문	한성주보
72	[연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	1882년
72	[연도] 러시아가 용암포 조차를 요구하였다.	1903년
72	[연도]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였다.	1885년
72	[연도]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1875년
72	[연도] 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한청 통상 조약이 맺어졌다.	1899년
72	[연도] 평양의 대동강에서 미국 상선이 좌초되었다.	제너럴셔먼호 사건 (1866)
72	[연도]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다.	1811년 (순조)
72	[연도]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1862년 (철종)
72	[연도] 황사영 백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1801년 (순조)
72	[연도] 어재연이 광성보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신미양요 (1871)
72	과거제가 폐지되었다.	1차 갑오개혁 (1894)
72	호포제가 실시되었다.	홍선대원군
72	교정청이 설치되었다.	동학농민운동 - 전주화약
72	5군영이 2영으로 통합되었다.	개화정책
72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	2차 갑오개혁 (1894)
72	단발령 시행	을미개혁 (1895)
72	[연도] 농민군이 정부와 화약을 맺었다.	1894년 (전주화약)
72	[연도] 최제우가 흑세무민의 죄로 처형되었다.	1864년 (동학창시)
72	[연도] 홍계훈의 관군을 상대로 농민군이 승리하였다.	황룡촌 전투 (1894)
72	[연도] 피신해 있던 농민군의 지도자 전봉준이 체포되었다.	우금치 전투 (1894)
72	농민들이 조병갑의 탐학에 맞서 만석보를 파괴하였다.	고부 민란 배경
72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였다.	정미의병 (1907)
72	최익현이 태인에서 쫓기하였다.	을사의병 (1905)
72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후 구본신참을 바탕으로 추진한 개혁	광무개혁
72	[연도]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1894년
72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였다.	1차 갑오개혁
72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개화정책
72	근대 교육 기관인 육영 공원을 설립하였다.	1886년

회차	근대의 한국사 (홍선대원군 ~ 일제강점기 이전)	
72	지계아문을 설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계를 발급하였다.	광무개혁
72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국채보상운동 (1907)
72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만민공동회 (1898)
71	경복궁 중건 비용 마련을 위해 당백전이 발행되었다.	홍선대원군
71	의궤를 비롯한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당하였다.	병인양요 (1866)
71	[연도] 홍경래 등이 난을 일으켜 정주성을 점령하였다.	순조 (1801)
71	[연도] 종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1871년
71	[연도]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유역에서 통상을 요구하였다.	1866년
71	[연도] 황사영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1801년
71	어재연 장군의 광성보 항전 / 강화도에 미군 침략	신미양요 (1871)
71	[연도]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영국 군인	1885년
71	남연군 묘의 도굴을 시도하는 독일 상인	오페르트 도굴사건 (1868)
71	[연도] 부산 절영도의 조차를 요구하는 러시아 공사	1897년
71	[연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점을 체결하는 청 관리	1882년
71	[연도] 헨진 조약에 따라 조선에서 철수하는 일본 군인	1885년
71	일본국 인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이정(里程)은 ~10리로 정한다.	조일 수호 조규 부록 (1876년)
71	통상 지역에서 조선 이법 100리 이내, ~ 영국 인민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	조영 수호 통상 조약 (1883년)
71	사람 형상의 가면을 쓴 궁중 무용 / 처용 설화를 바탕	처용무
71	김홍집 내각에서 추진한 개혁 / 태양력 시행 / 연호 건양	을미개혁
71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광무개혁
71	지방 행정 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였다.	2차 갑오개혁
71	군제를 개편하여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하였다.	을미개혁
71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였다.	1차 갑오개혁
71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였다.	2차 갑오개혁
71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개화정책
71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광무개혁
71	[연도] 신문지법을 공포하였다.	1907년
71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기구	통리기무아문
71	박문국에서 발행하였다.	한성순보
71	브나로드 운동을 주도하였다.	동아일보
71	여권통문을 처음 게재하였다.	황성신문
71	국채 보상 운동을 지원하였다.	대한매일신보
71	순한글판으로 발행된 최초의 신문이었다.	독립신문
71	발행인 베셀(Bethell) / 박은식과 양기탁이 발간에 참여	대한매일신보
71	독립문 /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 추진	독립협회
71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자강회
71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시켰다.	보안회
71	대성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신민회
71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71	백동화와 엽전을 일본 제일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사업	화폐정리사업 (1905)
71	[연도] 육영 공원에서 외국인 교사를 초빙하였다.	1886년
71	[연도] 함경도에서 방곡령이 선포되었다.	1889년
71	[연도] 황국 중앙 총상회의 상권 수호 운동이 전개되었다.	1898년
71	[연도] 황실의 지원을 받아 대한 천일 은행이 창립되었다.	1899년
71	[연도] 동양 적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1908년
71	[연도] 서양식 의료의 수용, 광혜원	1885년
71	[연도] 근대적 우편 제도의 시작, 우정총국	1884년
71	[연도] 원각사에서 연극 은세계를 공연하는 배우	1908년
70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회통이 편찬되었다.	홍선대원군
70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에 반발하여 일어난 사건	정미의병 (1907)
70	정족산성에서 양현수가 활약하였다.	병인양요 (1866)

회차	근대의 한국사 (홍선대원군 ~ 일제강점기 이전)	
70	광성진에서 어재연이 침입하는 미국 배에 항전하였다.	신미양요 (1871)
70	[연도]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운요호 사건 (1875)
70	[연도]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의 도굴을 시도하였다.	1868년
70	마젠창과 뮐렌도르프가 고문으로 파견되었다.	임오군란 이후
70	[연도]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1885년
70	[연도] 황사영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황사영 백서 사건 (1801년)
70	민영익과 홍영식이 참여한 보빙사가 미국으로 파견된 원인이 되는 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 (1882)
70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을사조약 (1905)
70	천주교 포교 허용의 근거가 되었다.	조불수호통상조약 (1886)
70	재정 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1차 한일협약 (1904)
70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강화도 조약 (1876)
70	최혜국 대우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조미수호통상조약 (1882)
70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일부 급진 개화파가 일으킨 사건 / 3일만에 실패	갑신정변 (1884)
70	전개 과정에서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동학농민운동 (1894)
70	수신사가 파견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강화도 조약 (1876)
70	한성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갑신정변 (1884)
70	사태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임술농민봉기 (1862)
70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임오군란 (1882)
70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덕수궁 (석조전)
70	[연도] 경인선 철도 개통	1899년
70	[연도] 한성 사범 학교	1895년
70	[연도] 두모포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는 일본 군인	두모포 수세 사건 (1878)
70	관민 공동회	독립협회 (1898)
70	교육 입국 조서	2차 갑오개혁 (1894)
69	집강소에서 추진한 개혁의 내용을 분석한다.	동학농민운동
69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홍선대원군 (경복궁 중건)
69	양헌수 장군이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병인양요
69	황사영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원인이 되었다.	신유박해
69	사태 수습을 위해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고부 민란
69	운요호 사건을 발미로 일어났다.	강화도 조약
69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배경	운요호 사건
69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홍선대원군
69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12사를 두었다.	개항기 개화 정책
69	일본 공사관 경비 명목으로 일본군이 주둔하였다.	임오군란 (제물포조약)
69	군국기무처 / 공사 노비법을 혁파	1차 갑오개혁
69	5군영을 2영으로 통합하였다.	개항기 개화 정책
69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을미개혁
69	한성 사범 학교 관제를 반포하였다.	2차 갑오개혁
69	지계아문을 설치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광무개혁
69	독립문을 세움 / 중추원을 개편하여 의회 설립을 추진	독립협회
69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보안회
69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신민회
69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69	[연도] 고종 강제 퇴위	1907년
69	뮐렌도르프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된 배경	임오군란
69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였다.	을사늑약 (1905년)
69	관민 공동회가 개최되어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	독립협회 (1898년)
69	[연도] 기유각서가 체결되어 사법권을 박탈당하였다.	1909년
69	대동 상회 등 근대적 상회사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조청 상민 수록 무역 장전
69	[연도] 서울 진공 작전에 참여하는 13도 창의군의 병	1908년
68	신미양요 때 미군이 탈취한 조선 지휘관 깃발	수자기

회차	근대의 한국사 (홍선대원군 ~ 일제강점기 이전)	
68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다.	홍선대원군
68	천주교 포교가 허용되었다.	조프수호통상조약 (1886)
68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한성조약 / 텐진조약
68	일본 측의 해안 측량권이 인정되었다.	강화도조약
68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전 (1882)
68	윤요호 사건으로 체결된 조약	강화도조약 (1876)
68	고부 민란으로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	1차 동학농민운동
68	일본의 경복궁 침범 / 전봉준의 봉기	2차 동학농민운동
68	부산 동래부 두모진에서 조선 상인과 일본 상인 간의 관세 문제로 충돌	두모포 수세 사건 (1878)
68	[연도] 1차 수신사 파견	1876년
68	[연도] 영국의 거문도 점령	1885년
68	[연도] 함경도 방곡령 선포	1889년
68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로 파견 / 40여 일 동안 미국에 체류	보빙사
68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파견	조선 통신사
68	조선책략을 들여와 국내에 소개하였다.	김홍집 (수신사)
68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영선사
68	전권대신 민영익과 홍영식, 서광범 등으로 구성되었다.	보빙사
68	고종의 석조전 착공을 주도한 개혁	광무개혁
68	박문국을 설치하여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민씨정권 개화정책
68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여 개화정책을 추진하였다.	민씨정권 개화정책
68	관립 상공 학교를 설립하여 실업 교육을 실시하였다.	광무개혁
68	지계아문을 설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계를 발급하였다.	광무개혁
67	비변사의 혁파로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이 정상화되었다.	홍선대원군
67	황사영 백서 사건의 배경	신유박해 (1801)
67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일어난 사건	신미양요
67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되었다.	임오군란
67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병인양요
67	에도 막부에 통신사가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기유약조 (정유재란)
67	사태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임술농민봉기
67	전개 과정에서 어재연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하였다.	신미양요
67	청 상인의 내륙 상점 개설 허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전 (1882)
67	쌀 수출 금지 시 일본 영사관에게 1달 전에 통보	조일통상장정 (1883)
67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	을사늑약
67	조선의 관세 자주권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조미수호통상조약
67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조항을 담고 있다.	조일통상장정 (1883)
67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명시하였다.	제물포 조약
67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텐진 조약
67	여권통문을 처음 보도하였다.	황성신문
67	국채 보상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대한매일신보
67	의병 투쟁에 호의적인 기사를 게재하였다.	대한매일신보
67	외국인이 읽을 수 있도록 영문으로도 발행되었다.	독립신문
67	순 한문 신문으로 열흘마다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한성순보
67	박문국에서 창간된 근대 신문	한성순보
67	초대 주미 공사 역임 / 미속습유 집필	박정양
67	샌프란시스코에서 홍사단을 창립하였다.	안창호
67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을 국내에 들여왔다.	김홍집
67	인재 양성을 위해 오산 학교를 설립하였다.	이승훈
67	국문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시경
67	독립 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추원 관제 개편을 추진하였다.	박정양
67	[연도] 통역관 양성을 위한 동문학 설립	1883년 (민씨정권 개화정책)
67	개혁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 반포	2차 갑오개혁

회차	근대의 한국사 (홍선대원군 ~ 일제강점기 이전)	
67	통리기무아문 설치와 개화 정책 추진	민씨정권 개화정책
67	원수부 창설과 황제의 군 통수권 강화	대한제국 광무개혁
67	23부로의 지방 제도 개편과 지방관 권한 축소	2차 갑오개혁
67	메가타가 탁지부의 재정 고문으로 선정되었다.	1차 한일협약 (1904)
67	군대 해산에 반발하여 일본에 저항한 의병 운동	정미의병 (1907.08)
67	[연월]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가 파견되었다.	1907년 6월
67	경복궁 중건을 위해 제작된 화폐	당백전, 원납전
67	과부 재가 허용 / 공노비 및 사노비 신분제 철폐	1차 갑오개혁 (1894)
67	공노비 해방	순조 (1801)
66	[궁궐] 홍선대원군 시절 중건 / 일제 시대 때 근정전을 가로막는 총독부 건물 세움	경복궁
66	[궁궐] 도성 내 서쪽에 있어 서궐이라고 불렸다.	경희궁
66	평안 감사 박규수가 이양선을 공격하여 불태움	제너럴셔먼호 사건
66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동학농민운동
66	정약종 등이 희생된 신유박해가 일어났다.	순조
66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군이 강화도에 침입하였다.	신미양요
66	황사영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신유박해
66	한성 조약이 체결되었다.	갑신정변
66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민씨정권 개화정책
66	[연도] 김윤식이 청에 영선사로 파견되었다.	1881년
66	[연도] 일본 군한 윤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1875년
66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다.	민씨정권 개화정책
66	교조 최제우 / 2대 교주 최시형	동학
66	항일 무장 단체인 중광단을 결성하였다.	대종교
66	박종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펼쳤다.	원불교
66	배재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앞장섰다.	개신교
66	프랑스와의 조약을 통해 포교가 허용되었다.	천주교
66	동경대전을 경전으로 삼았다.	동학
66	일본 공사에 황무지에 대한 권리 청구한 단체	보안회
66	고종의 아관파천의 배경	을미사변 (1895)
66	원수부 설치 / 지계아문 설치	대한제국 광무개혁
66	군국기무처가 창설되었다.	1차 갑오개혁
66	5군영이 2영으로 통합되었다.	민씨정권 개화정책
66	한성 사범 학교가 설립되었다.	1895년
66	건양이라는 연호가 제정되었다.	을미개혁 (1895)
65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광무개혁
65	[연도]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하였다.	1868년
65	[연도] 미국이 조미 수호통상 조약 체결 후 푸트 공사를 파견하였다.	1882년
65	[연도] 러시아가 용암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1903년
65	[연도] 일본의 윤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1875년
65	[연도] 척화비를 세웠다.	1871년
65	[연도]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1885~87년
65	구식 군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로 발생한 난	임오군란
65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갑신정변
65	조선 총독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국채보상운동
65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어났다.	갑신정변
65	홍범 14조를 기본 개혁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2차 갑오개혁
65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임오군란
65	논산으로 남접과 북접이 집결하였다.	2차 농민봉기
65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교정청이 설치되었다.	1차 농민봉기 결과
65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였다.	2차 농민봉기 배경
65	고부 농민들이 조병갑의 탐학에 맞서 만학보를 파괴하였다.	고부민란

회차	근대의 한국사 (홍선대원군 ~ 일제강점기 이전)	
65	공주 우금치에서 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배하였다.	2차 농민봉기
65	[연도] 헤이그 특사 파견	1907년
65	이인영, 허위 유생 의병장 주도 / 13도 창의군 창설	정미의병 (서울진공작전)
65	조선 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다.	의열단
65	이만손이 주도하여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
65	상덕태상회를 통하여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대한광복회
65	일본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독립의군부
65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에 반발하여 결성되었다.	정미의병
65	[연도] 아관파천	1896년
65	[연도]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1881년
65	[연도]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1894년
65	[연도]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었다.	1899년
65	[연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났다.	1866년
65	[연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1882년
65	[연도] 황국 중앙 총상회 창립	1898년
65	[연도] 보안회 조직	1904년
65	[연도] 국채 보상 운동	1907년
65	러시아 절영도 조차 요구 반대	독립협회
65	정우회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되었다.	신간회
65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천도교 (동학)
65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독립협회
65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소년 운동을 전개하였다.	방정환
65	태극서관을 운영하여 계몽 서적 등을 보급하였다.	신민회
65	[장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 간행되었다.	박문국
65	고종의 황제 즉위식이 거행된 장소	환구단
65	[장소] 백동화가 주조되었다.	전환국
65	[장소]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덕수궁 중명전
65	[장소] 나윤규의 아리랑이 처음 상연된 곳이다.	극장 단성사
65	[연도] 연수부가 설치되었다.	1899년
65	[지역] 임병찬이 의병을 일으킨 무성 서원이 있는 장소	전북 정읍
65	[지역] 동학농민군이 정부와 화약을 맺은 장소	전주
64	평양 군민들이 대동강에서 이양선을 격침한 사건	제너럴셔먼호 사건
64	신유박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	황사영 백서사건
64	신미양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된 사건	제너럴셔먼호 사건
64	전개 과정에서 전주 화약이 체결되었다.	동학농민운동
64	외규장각 도서관이 국외로 약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병인양요
64	[인물] 홍선대원군의 하야를 요구하는 도끼 상소 / 왜양일체론 주장	최익현
64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를 집필하였다.	박은식
64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여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최익현
64	13도 창의군을 지휘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인영
64	보국안민을 기치로 우금치에서 일본군 및 관군에 맞서 싸웠다.	전봉준
64	고종 왕비를 경우궁으로 피신시킨 후 민씨 측근 척족 제압	갑신정변 (1884)
64	군국기무처 / 탁지아문 / 조흔 금지, 과부 재가 허용	1차 갑오개혁
64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을미개혁
64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광무개혁
64	관민 공동회 / 헌의 6조 / 만민 공동회	독립협회
64	일제의 항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시켰다.	보안회
64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에 반대하였다.	독립협회
64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계몽 서적을 보급하였다.	신민회
64	민립 대학 설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민립대학설립 기성회
64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회차	근대의 한국사 (홍선대원군 ~ 일제강점기 이전)	
64	[연도] 길모어 등이 육영 공원 교사로 초빙되었다.	1886년
64	[연도] 정부가 동문학을 세워 통역관을 양성하였다.	1883년
64	[연도] 이승훈이 인재 양성을 위해 오산 학교를 세웠다.	1907년
64	[연도] 함경도 덕원 지방의 관민들이 원산 학사를 설립하였다.	1883년
64	[연도]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	1894년
64	[연도] 한성 사범 학교 설립	1895년 (2차 갑오개혁)
64	양기탁과 베델이 창간한 신문	대한매일신보
64	상업광고를 처음으로 실었다.	한성주보
64	천도교의 기관지로 발행되었다.	만세보
64	국채 보상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대한매일신보
64	일장기를 삭제한 손기정 사진을 게재하였다.	조선중앙일보
64	순 한문 신문으로 열흘마다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한성순보
64	포츠머스 조약으로 종결된 전쟁	러일 전쟁
64	[연도] 경부선 철도 개통	1905년
64	미국과 유럽을 여행한 뒤 서유견문을 집필하였다.	유길준
64	국문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시경
64	세계지리 교과서인 사민필지를 한글로 저술하였다.	혈버트
64	민족을 역사 서술의 중심에 둔 독사신문을 발표하였다.	신채호
64	전국을 23부의 행정 구역으로 나눴다.	2차 갑오개혁
64	[인물] 보병사의 전권대신으로 미국에 파견되었다.	민영익
63	[연도] 상권 수호를 목적으로 황국 중앙 총상회를 조직하였다.	1898년
63	[연도] 보은에서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1893년
63	진주 농민 봉기 때 안핵사로 파견된 사람 / 문호 개방 주장	박규수
63	조선 중립화론을 건의하였다.	유길준
63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양기탁
63	대동강에 침입한 제너럴 셔먼호를 격침하였다.	박규수
63	서양의 과학 기술을 정리한 지구전요를 저술하였다.	최한기
63	강화도 조약 체결의 전말을 기록한 심행일기를 남겼다.	신헌
63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 중심으로 개혁 추진 / 청과의 사대 관계 청산 주장	갑신정변 (1884)
63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기치로 내걸었다.	동학농민운동
63	한성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갑신정변 (1884)
63	개혁 추진을 위해 교정청을 설치하였다.	동학농민운동
63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되었다.	임오군란
63	민영익 등이 보병사로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조미수호통상조약
63	김광제 등의 발의로 본격화되었다.	국채보상운동
63	원수부를 두었다.	광무개혁
63	군국기무처 / 김홍집	1차 갑오개혁
63	은본위제를 도입하였다.	1차 갑오개혁
63	태양력을 공식 채택하였다.	을미개혁
63	5군영을 2영으로 통합하였다.	민씨 정권 개화정책
63	재판소를 설치하였다.	2차 갑오개혁
63	독립문 건립 / 러시아의 철영도 조차 요구 규탄 집회 / 황국 협회의 습격으로 해산	독립협회
63	평양에 대성 학교를 설립	신민회
63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	대한자강회
63	집강소를 중심으로 폐정 개혁안을 실천	동학농민운동
63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를 결의	독립협회
63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흥범 14조를 반포하였다.	2차 갑오개혁
63	[인물]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을 간행하였다.	이종일
63	태극 서관을 설립하여 서적을 보급하였다.	신민회
62	정미 7조약에 의해 해산되었다.	대한제국 군대
62	강화도 광성보 / 어재연 장군의 미군 침입 방어	신미양요 (1871)

회차	근대의 한국사 (홍선대원군 ~ 일제강점기 이전)	
62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	을미개혁
62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	민씨정권 개화정책
62	관립 의학교와 광제원을 설립	광무개혁
62	박문국을 설치하여 한성순보 발간	1883년
62	청의 알선으로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 (1882)
62	부산, 원산, 인천 항구가 개항되었다.	강화도조약
62	김홍집이 국내에 조선책략을 소개하였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의 배경
62	민영익을 대표로 한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1883년
62	일본 군한 윤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강화도조약 배경
62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다.	민씨정권 개화정책
62	태극서관 / 대성학교	신민회 (1907~1911)
62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저지	독립협회
62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	신한청년당
62	안창호, 양기탁 등이 비밀 결사로 조직	신민회 (1907~1911)
62	국문 연구소를 세워 한글의 문자 체계를 정리	주시경, 지석영
62	관민 공동회 개최식을 개최	독립협회
62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	보안회
62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 추진	독립협회
62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여권통문 발표	찬양회 (1898)
62	육영 공원의 교사 활동 / 고종의 특사가 되어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린 헤이그 방문	혈버트
62	화폐정리 사업을 주도	메가타
62	한글로 된 교재인 사민필지를 집필	혈버트
62	여성 교육 기관인 이화 학당을 설립	스크랜튼
62	친일 인사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	장인환, 전명운
62	논설 단연보국채를 써서 국채 보상 운동에 적극 참여	서상돈
61	어재연 장군 / 광성보 /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군	신미양요 (1871)
61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졌다.	신미양요 이후
61	[연도]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다.	1866년
61	[연도] 한성군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항전하였다.	병인양요 (1866)
61	[연도] 신유박해로 많은 천주교도가 처형되었다.	1801년 (순조)
61	[연도]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하였다.	1868년
61	공사 노비법이 혁파되었다.	1차 갑오개혁 (1894)
61	[연도] 한성 전기 회사가 설립되었다.	1898년
61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가 채택되었다.	을미개혁 (1895)
61	지방 행정 구역이 8도에서 23부로 개편되었다.	2차 갑오개혁 (1894)
61	공사관 습격 / 왕궁 및 민태화와 민겸호의 집도 습격	임오군란 (1882)
61	전주 화약이 체결되는 계기	동학농민운동
61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전개	갑신정변 / 갑오개혁
61	김기수라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강화도조약
61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	임오군란 (1882)
61	3일 만에 실패로 끝나 주동자들이 해외로 망명하였다.	갑신정변 (1884)
61	국어 연구 / 호: 한헌샘 / 독립신문사의 교보원으로 활동 / 국문 연구소의 연구위원 활동	주시경
61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를 집필	박은식
61	세계지리 교과서인 사민필지를 한글로 저술	혈버트
61	여유당전서를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	정인보 / 안재홍
61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요구	형평운동
61	독립문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 전개	독립협회
61	자작회, 토산 애용 부인회 등의 단체가 활동하였다.	물산장려운동
61	대한매일신보 등 당시 언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국채보상운동 (1907)
61	105인 사건 / 양기탁, 이승훈이 형을 선고 받음 / 대성 학교	신민회 (1907~11)
61	정우회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	신간회

회사	근대의 한국사 (홍선대원군 ~ 일제강점기 이전)	
61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의열단
61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	보안회
61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	독립협회
61	계몽 서적의 보급을 위해 태극서관 운영	신민회 (1907~11)
61	보빙사 일행으로 미국에 파견되는 관리	조미수호통상조약 이후
61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	대한자강회 (1906)
61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힘썼다.	천도교
61	신흥 감습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신민회
61	[종교] 단군 숭배 사상	대종교
61	[종교] 의민단 조직하여 무장 투쟁 전개	천주교
61	[종교] 간척 사업을 진행하고 새생활 운동을 펼침	원불교
61	[종교] 배재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	개신교
61	[종교]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소년 운동을 추진	천도교
60	교육 입국 조서 반포를 계기로 세움	한성사범학교
60	우정국의 개국 축하연	갑신정변 (1884)
60	김기수가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	1차 수신사 (1876)
60	[연도]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움	1886년
60	일본 군함 윤요호가 영종도를 공격	1875년 (강화도 조약 이전)
60	박규수가 삼정이정청의 설치 건의	임술농민봉기 (1862)
60	청과 일본 사이에 텐진 조약 체결	갑신정변 결과
60	프랑스 군이 강화도를 침략한 사건으로 외교장각 도서 등이 약탈됨	병인양요
60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되었다.	임오군란
60	제물포 조약의 체결로 이어졌다.	임오군란
60	양헌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적군을 물리쳤다.	병인양요 결과
60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점령하는 배경이 되었다.	조러 통상 조약 (1884)
60	고종이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선포한 국호	대한제국
60	통역관 양성을 목적으로 동문학을 설립	민씨 정권 개화정책 (1883)
60	대한국 국제 반포 / 원수부 설치 / 이범윤 간도 관리사 파견 / 지계아문 설립 후 지계 발급	대한제국 광무개혁
60	독립협회가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절영도조차 요구
60	재정 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시행	화폐정리사업 (1905)
60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중심이 되어 실시	토지조사사업
60	은본위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배경	갑오개혁
60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곡령을 선포하는 계기	조일통상장정 (1883)
60	[연도] 한일 신협약 (정미7조약) 이후 진행된 군대 해산	1907년
60	[연도]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	1883년
60	[연도] 베델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	1904년
60	[연도]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림	1881년
60	[연도]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	1881년
60	[연도]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여 개혁 추진	1880년
60	[연도] 최초 전차 개통	1899년
60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	국채보상운동 (1907)
60	국채 보상 기성회를 중심으로 전개	국채보상운동 (1907)
60	납으로 만든 활자를 사용해 박문국에서 발행하였다.	한성순보
59	조약 체결에 대한 답례로 보빙사 를 보낸 나라	미국
59	청군이 파병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임오군란
59	제물포 조약 이 체결되는 배경이 되었다.	임오군란
59	보국안민, 제폭구민 을 기치로 내걸었다.	동학농민운동
59	박규수 가 안핵사 로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임술농민봉기
59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 사발통문 을 작성하였다.	동학농민운동
59	조일 수호 조규 / 해양 측량권 허가	강화도 조약 (1876)

회차	근대의 한국사 (홍선대원군 ~ 일제강점기 이전)	
59	최해국 대우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882)
59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을사늑약 (1905)
59	천주교 포교 허용의 근거가 되었다.	조프 수호 통상 조약 (1886)
59	일본 경비병의 공사관 주둔을 명시하였다.	제물포 조약 (1882)
59	부산 외 2곳에 개항장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강화도 조약 (1876)
59	우정총국 개국 연회를 습격했다.	갑신정변
59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폐지되었다.	홍선대원군 재집권
59	[시기] 김기수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강화도 조약 이후
59	[시기] 이항로와 기정진이 척화주전론을 주장하였다.	병인양요 이후
59	왕비가 궁궐을 빠져 나와 장호원으로 피신하였다.	임오군란
59	개화당 정부가 수립되고 개혁 정강이 발표되었다.	갑신정변
59	김홍집과 박영효를 중심으로 추진된 개혁	2차 갑오개혁
59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광무개혁
59	기기창을 설립하였다.	민씨정권 개화정책 (1883)
59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였다.	1차 갑오개혁
59	태양력을 공식 채택하였다.	을미개혁
59	한성 사범 학교 관제를 반포하였다.	2차 갑오개혁
59	석조전 건립	대한제국 (1910)
59	[연도]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영국 해군	1885년
59	[연도] 보은 집회에서 교조 신원을 주장하는 동학교도	1893년
59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하는 관리	광무개혁
59	육영공원 설립	1886년
59	러일 전쟁의 일본 승리 /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 인정한 조약	포츠머스 강화조약 (1905)
59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부임	1차 한일협약 (1904)
59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 옮김	아관파천 (1896)
59	베델과 양기탁이 창간한 신문	대한매일신보 (1904)
59	관민 공동회가 개최되어 헌의 6조를 결의	독립협회 (1898)
59	민중식이 이끄는 의병 부대가 홍주성 점령	을사의병 (1905)
59	동학에서 시작된 종교 / 인내천 사상 / 방정환의 '어린이 날' 선포	천도교
59	중광단을 조직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대종교
59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기독교
59	박종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추진하였다.	원불교
59	일제의 통제에 맞서 사찰령 폐지 운동을 주도하였다.	불교
59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힘썼다.	천도교
58	삼군부를 부활시켜 군국 기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홍선대원군
58	서원 철폐 / 만동묘 철거	홍선대원군
58	제너럴 셔먼호를 구실로 미군이 침입하였다.	홍선대원군
58	납북첩이 논산에서 집결하였다.	2차 동학농민운동
58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1차 동학농민운동
58	백산에 모여 4대 강령을 선포하였다.	1차 동학농민운동
58	삼례 / 보은 집회	동학 교조 신원 운동
58	[연도] 알렌의 건의로 광혜원이 세워졌다.	1885년
58	[연도] 박문국에서 한성순보가 발행되었다.	1883년
58	[연도]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이 설립되었다.	1883년
58	[연도]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이 개통되었다.	1905년
58	[연도] 우편 사무를 관장하는 우정총국이 처음 설치되었다.	1884년 (갑신정변)
58	태양력 도입된 개혁	을미개혁
58	지계아문을 설립하였다.	광무개혁
58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대한제국 (1899년)
58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을미개혁
58	개혁 추진 기구로 교정청을 설치하였다.	1차 동학농민운동

회차	근대의 한국사 (홍선대원군 ~ 일제강점기 이전)	
58	군제를 개편하여 5군영을 2영으로 통합 하였다.	임오군란 배경
57	백동화를 주조하는 전한국 의 기술자	대한제국
57	왕실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 하였다.	홍선대원군
57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 가 시행되었다.	홍선대원군
57	제 2차 수신사 로 일본에 파견 / 아관 파천 후 성난 군중에 의해 살해됨	김홍집
57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신보 를 창간하였다.	양기탁
57	서양의 과학 기술을 정리한 지구전요 를 저술하였다.	최한기
57	강화도 조약 체결의 전말을 기록한 심행일기 를 남겼다.	신현
57	유학생과 기술자들을 이끄는 영선사 로 청에 파견되었다.	김윤식
57	총리대신으로 갑오개혁 을 주도하였다.	김홍집
57	진주의 백성들이 변란 을 일으켜...	임술 농민 봉기 (철종)
57	군 통수권 장악을 위해 원수부 를 두었다.	광무개혁 (고종)
57	각 국방과 중앙 관서의 공노비 를 해방 하였다.	순조
57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 를 반포하였다.	2차 갑오개혁 (1894)
57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백전 을 발행하였다.	홍선대원군
57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자 삼정이정청 을 설치하였다.	임술 농민 봉기 (철종)
57	최혜국 대우 / 서양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조약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882)
57	병인양요 발생의 배경 이 되었다.	병인 박해
57	갑신정변의 영향 으로 체결되었다.	한성/텐진 조약
57	통감부 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 2차 한일협약 (1905)
57	거중조정 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882)
57	메가타가 재정 고문 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 1차 한일 협약 (1904)
57	최제우 가 창시한 종교	동학
57	포접제 를 활용하여 교세를 확장하였다.	동학
57	박종빈 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 을 추진하였다.	원불교
57	종광단 을 조직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대종교
57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 로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천주교
57	독립문 이전 을 결정한 단체	독립협회
57	만세보 를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앞장섰다.	천도교
57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 을 전개하였다.	대한자강회
57	여성 권리 선언문인 여권통문 을 공표하였다.	찬양회
57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 공채 를 발행 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57	만민 공동회 를 열어 열강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였다.	독립협회
57	[지역] 대일 무역의 거점, 초량 왜관 / 두모포 수세 사건	부산
57	이완용 등의 역적 을 처단 하라는 상소를 올리고 임병찬 등과 태인에서 일으킨 의병	울사의병 (최익현)
57	도끼 를 들고 대궐 앞에 엮드려 개혁에 반대하는 상소 를 올렸다.	최익현 (개화반대)
57	함경도 / 식량 유출 / 금지 시행 1개월 전까지는 일본 공사에게 아리시어...	방곡령
57	화폐 정리 사업 의 결과를 분석한다.	메가타 (1905)
57	조일 통상 장정 체결의 영향을 살펴본다.	방곡령
57	양지아문 과 지계아문 을 설치한 목적을 알아본다.	광무개혁 (고종)
57	유교계 에 3대 문제가 있는지라. 그 문제에 관해 개량하고 구신 하지 않으면...	박은식 '유교구신론'
57	양명학 을 통해 기존의 유학을 개선, 실학의 실천 정신 을 받아들여 구국 운동을 실행	박은식
57	3 1운동의 영향을 상하이에서 수립된 단체	대한민국 임시정부
57	민족 교육을 위해 대성 학교 를 설립하였다.	신민회
57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진상 조사단 을 파견하였다.	신간회
57	외교 독립 활동을 위해 구미 위원부 를 설치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57	임시 사료 편찬회 를 두어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회차	근대의 한국사 (홍선대원군 ~ 일제강점기 이전)	
57	헤이그 특사의 배경	을사늑약
57	구식 군인의 차별대우	임오군란
57	집강소 설치	1차 동학농민 운동
57	대한 제국의 군대 해산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
57	최초 전차 개통 연도	1899년
57	대한국 국제를 반포 연도	1899년
57	거문도 사건 연도	1985년
57	제너럴 셔먼호 사건 연도	1866년
57	시전 상인의 상권 수호 운동	황국 중앙 총상회
57	급진 개화파의 정치 개혁 운동	갑신정변 (1884)
57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한 반대 운동	보안회
57	육영 공원 설립 연도	1886년
57	국문 연구소 설립 연도	1907년 (주시경)
57	교육 입국 조서 반포 연도	1895년 (2차 갑오개혁)
57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인영 (정미의병)
57	복벽주의를 내세운 독립 의군부가 조직되었다.	임병찬 (1910년대)
57	김광제 등의 발의로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났다.	1907년
57	통상 수교 거부 의지를 담은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홍선대원군 (1871년)
57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6 10 만세 운동
57	[지역] 동학 농민군과 정부 사이에 화약이 체결된 곳	전주
56	청의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임오군란 / 갑신정변
56	척왜양창의를 기치로 내걸었다.	동학농민 운동
56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였다.	임오군란
56	사건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임술 농민 봉기
56	세도 정치기의 수탈과 지역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홍경래의 난
56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1차 갑오개혁
56	태양력을 시행하였다.	을미개혁
56	정부가 세운 최초의 관립학교	육영공원 (1886)
56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였다.	1차 갑오개혁
56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개화 정책 핵심 기구 (1880)
56	양헌수가 정족산성에서 활약하였다.	병인양요
56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졌다.	신미양요 이후
56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하였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
56	위안스카이(청나라)가 이끄는 군대가 조선에 상륙하였다.	임오군란 이후
56	천주교 선교사와 신자들이 처형되었다.	병인박해
56	김홍집이 가지고 온 조선책략이 국내에 유포되었다.	2차 수신사
56	급진개혁파 김옥균이 일본과 차관 지원 약속을 받고 우정충국 개국 축하연을 습격하였다.	갑신정변
56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임오군란 배경
56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강화도 조약 이후
56	일본 군함 윤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강화도 조약 배경
56	이만손이 주도하여 영남 만민소를 올렸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배경

회차	근대의 한국사 (홍선대원군 ~ 일제강점기 이전)	
56	전봉준 백산 봉기 4대 강령 발표 황토현(4.7) / 황룡촌(4.23) 전투 승리 이후 전주성 점령 (4.27) 정부의 청 진압 요구 청군 파견 (5.5 아산만 상륙) 일본군 파병 (5.6 텐진조약 위반 명분) 전주화약 체결 (5.8) / 집강소 설치 정부의 교정청 설치 (6.11) but, 일본의 철병 거부, 경복궁 장악 (6.21) 청 일 전쟁 (6.23) 군국기무처 설치 (6.25) 갑오개혁 단행 (7월)	동학 농민 운동 1차 봉기
56	서재필이 창간한 근대적 민간 신문	독립신문
56	국호를 대한 으로 선포하였다.	대한제국 (광무개혁)
56	조청 상민 수록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임오군란 이후
56	양전 사업이 실시되어 지계 가 발급되었다.	대한제국 (광무개혁)
56	안창호, 양기탁 이 조직한 단체로 대성 학교 를 설립하였다.	신민회
56	태극 서관 을 운영하였다.	신민회
56	105인 사건 으로 와해되었다.	신민회
56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삼례 집회 가 개최되었다.	동학 교조 신원 운동 (고종)
56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 를 저지 하였다.	독립협회
56	대한매일신보 의 후원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국채보상운동
55	오페르트 가 남연군 묘 도굴 을 시도하였다.	홍선대원군
55	사창제 실시 / 원남전 징수 / 경복궁 중건	홍선대원군
55	프랑스인 주교 2명과 선교사 9명 을 희생시킨 사건	병인박해
55	윤요호 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강화도 조약 배경
55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청 하는 계기가 되었다.	임오군란
55	사태 수습을 위해 박규수 가 안핵사 로 파견되었다.	임술 농민 봉기
55	홍선 대원군이 텐진으로 압송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임오군란
55	구식 군인 들이 일으킨 사건	임오군란
55	전개 과정에서 전주 화약 이 체결되었다.	동학 농민 운동 (1차 봉기)
55	통리기무아문 이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	강화도 조약
55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을 이용하여 일어났다.	갑신정변
55	홍범 14조 를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갑오개혁
55	일본 공사관 에 경비병 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물포 조약
55	8아문 을 7부로 , 전국 8도 를 23부 로 개편하였다.	2차 갑오개혁
55	지계 발급	대한제국 광무개혁
55	태양력 사용	을미개혁
55	한성순보 발행	박영효 (박문국)
55	공사 노비법 폐지	1차 갑오개혁
55	교육 입국 조서 반포	2차 갑오개혁
55	이범윤 을 간도 관리사 로 임명하였다.	대한제국
55	제너럴 셔먼호 를 불태우는 평양 관민	신미양요
55	을미사변 과 단발령 시행 에 반발 하여 유인석, 이소응 등 유생 주도하에 일어났다.	을미의병
55	을사늑약 체결 에 반대 하여 최익현, 신돌석 등이 의병을 일으켰다.	을사의병
55	13도 창의군 이 결성되어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다.	정미의병
55	을미의병 (1895) 을사의병 (1905) 정미의병 (1907)	-
55	양기탁 / 베델 이 창간한 신문	대한매일신보
55	최초로 상업광고 를 실었다.	한성주보
55	천도교의 기관지 로 발행되었다.	만세보
55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 이었다.	독립신문
55	국채 보상 운동 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대한매일신보
55	일장기를 삭제한 손기정 사진 을 게재 하였다.	동아일보
55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 을 간행하였다.	1898년
54	서원 철폐 하고 삼군부 와 5군영 의 군사 제도를 복구하였다.	홍선대원군

회차	근대의 한국사 (홍선대원군 ~ 일제강점기 이전)	
54	종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척화비 를 세웠다.	홍선대원군
54	영은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 을 건립 하였다.	독립협회
54	어재연 이 이끈 조선군 수비대가 로저스 제독의 함대에 맞서 광성보 에서 항전하였다.	신미양요
54	구본신 의 원칙을 내세워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광무개혁 (고종)
54	재정 확보를 위해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는 양전 사업을 시행하여 지계 를 발급 하였다.	대한제국 (고종)
54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 를 반포하였다.	갑오개혁
54	안창호, 양기탁 등이 1907년에 조직한 비밀 결사	신민회
54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을 제정하였다.	조선어학회
54	조선 혁명 선언 을 활동 지침으로 하였다.	의열단
54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 공채 를 발행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54	대성 학교 와 오산 학교 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신민회
54	1883년에 보빙사의 일원으로 미국 유학 후, ' 서유견문 '을 저술하였다.	유길준
54	조선 중립화론 을 주장하였다.	유길준
54	갑신정변 실패 직후 일본으로 망명 하였다.	김옥균
54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립 협회 를 창립하였다.	서재필
54	배재 학당 을 설립하여 근대 교육을 보급하였다.	아펜젤러
54	참정대신 자격으로 관민 공동회 에서 연설하였다.	박정양
54	을사늑약 체결 이후 의병 활동으로 관군에게 체포되어 쓰시마 섬에 유배 중 순국 하였다.	최익현
54	13도 창위군 을 이끌고 서울 진공 작전 전개하였다.	허위, 이상설
54	일본에 도입한 차관을 갚기 위해 김광제 등의 발의 로 전개된 운동	국채 보상 운동
54	미국의 중재로 체결된 조약으로 러시아로부터 일본의 대한 제국에 대한 지배 인정받았다.	포츠머스 강화조약
54	통감부 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국채보상운동
53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을 습격하였다.	갑신정변
53	연무당 에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였다.	강화도 조약
53	아관파천 의 원인이 되었다.	을미사변
53	원수부 를 설치하였다.	대한제국 광무개혁
53	군국기무처 를 설치하였다.	갑오 1차 개혁
53	교육입국조서 를 발표하였다.	갑오 2차 개혁
53	사법권, 군사권을 독립시켜 지방관 권한을 약화 시켰다.	갑오 2차 개혁
53	신식 군대인 별기군 창설의 원인이 되었다.	강화도 조약
53	일본에 최혜국 대우 를 인정하였다.	조 일 통상 장정 (1883)
53	갑신정변 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한성조약 / 텐진조약
53	방곡령 시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조 일 통상 장정 (1883)
53	일본 공사관에 경비관 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물포 조약
53	일본인 재정 고문 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제 1차 한일 협약
53	부산 외 2개 항구 를 개항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강화도 조약
53	서재필, 윤치호, 남궁억 이 창립하였다.	독립협회
53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 을 전개하였다.	대한자강회
53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 으로 와해되었다.	신민회
53	영은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 을 건립 하였다.	독립협회
53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 조사단 을 파견하였다.	신간회
53	독립 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 공채 를 발행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53	통감부 에서 추천하는 일본인을 관리로 임명하였다.	한일 신협약 (정미 7조)
53	통감을 두어 외교권을 박탈 하였다.	제 2차 한일 협약 (을사늑약)
53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 작전 을 전개하였다.	정미의병
53	관민 공동회 가 개최되어 헌의 6조 를 결의하였다.	독립협회
53	동학 농민군이 우금치 에서 관군 및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동학농민 운동 2차 봉기